



성령 강림 대축일 · 청소년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로만 바라박

Roman Barabakh

〈성령 강림, 2017〉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에제 37,14)



강론

희망과 생명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는 이 장면은 사람의 첫 창조를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느님의 숨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숨’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숨’을 불어 넣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제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잘 견디고 버텼고,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희망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멈추고 중단되었던 것들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고통과 죽음의 시기를 통과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신앙인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련과 고통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희망을 성취해내는 것.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길은 우리에게 은총이 되었고,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은총과 희망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총과 희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자 청소년 주일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과연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희망을 꿈꾸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 희망이듯, 우리의 신앙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더 큰 희망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정림 라우렌시오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제 1 독 서 사도 2,1-11
화 답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 서 1코린 12,3ㄷ-7,12-13
복 음 요한 20,19-23

주일 진레



성령의 상징

바람과 불

바람은 어디에 담기지 않고 모든 것을 쓸어버릴 힘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오셨다고 전한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사도 2,1-2) 오순절 내려오신 성령은 바람과 함께 불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사도 2,3) 불은 금속을 제련하는 것처럼 정화할 수도 있고 열을 주어 따뜻하게도 한다. 예수님의 죽음 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분께서 성령을 주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에서 불같은 성령을 확인할 수 있다.



물

물은 생명 또는 재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사야는 하느님의 영을 부어지는 것을 물의 생명력과 연결시킨다.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메마른 곳에 시냇물을 부어 주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나의 영을, 너의 새싹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 주리라.”(이사 44,3)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살아 있는 물로써 표현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요한 7,38)



비둘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려오시는 성령은 비둘기로 비유된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요한 1,32) 비둘기는 연인(아가 2,14), 전령사(아가 1,15), 자유(시편 55), 승리(시편 68,13) 등 그 의미의 범위가 넓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려오시는 성령은, 천지창조 때 땅이 모양을 갖추기 전에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창조 창세 1,1)



좋은 삶으로의 초대 (2)

최성욱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좋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드러났고, 교회가 그분의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상 안에서도 그 삶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이를 ‘제자로 부름 받은 삶’ 혹은 ‘제자 됨의 삶’(discipleship)이라고 부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오늘은 은사님의 책, 『좋은 삶으로의 초대: 영성과 도덕성의 접점』(2018)의 다섯 번째 단원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소제목이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루카복음 10장 37절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지막 구절과 같습니다. 제자 됨의 길을 안내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성경 구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까닭은 단순히 규범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도 아니고, 죄가 될까 두려움에 휩싸여서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분을 닮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다섯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문장에는 O표를,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장에는 X표를 표시해 봅시다.

-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했다().
- 예수님의 삶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일이 어떻게 될지 언제나 확실히 아셨다().
- 예수님의 사랑에도 성의 다양한 차원이 있었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고민을 하셨다().
- 예수님도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친구의 돌봄이 도움이 되었다().
- 예수님이 사막에서 받았던 유혹은 사명을 포기할 만큼 실질적인 유혹이었다().

미사에 참석한 분들끼리 혹은 가족끼리 서로의 대답을 비교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신학생들과 수업할 때, 혹은 본당에서 특강할 때 위의 질문들로 강의를 시작한 적이 많습니다. 종종 흥미롭고 재미있는 결과와 마주했습니다. 같은 본당 교우분인데도 대답은 다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함께 확인한 다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우리는 정녕 같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인가요?”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니었던 말인가요?”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은 왜 서로 달랐던 것일까요?”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니었던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른 분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느님을 가까이 계신 하느님으로 체험했느냐, 멀리 계신 하느님으로 체험했느냐에 따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느님 상’(image of God)이 달랐던 것입니다. 교수 신부님 한 분은 신학교에 갓

들어온 1학년 신입생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하느님의 상’을 우선 지워버려라!” “지금까지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생각했던 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 보자.”

“동일한 하느님을 믿기도 했고, 그 후로는 동일한 하느님을 불신했습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분이 쓰신 『God We Never Knew』(『새로 만난 하느님』(2001)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됨)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던 하느님에 관해 생각하고 그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방식에 대해 기술”하기 위해 적은 책이라고 서문에서 소개합니다. 아주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어린 시절 가졌던 ‘하느님에 대한 관념’이 조금씩은 수정되기는 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야 자신이 생각하던 하느님의 ‘상’이 왜곡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문제가 아니었고, 내 안에 그려냈던 ‘내 하느님 상’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동일한 하느님을 믿기도 했고, 그 후로는 동일한 하느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같은 하느님을 좋아하기도, 같은 하느님을 밀쳐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안에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브로드웨이 극장과 영화관에도 등장하고, 티셔츠 문구에도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예수님이 넘쳐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미지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덕분에 예수님에 대한 통찰이 풍요롭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대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다음의 질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마태 16,15) 예수님이 인생에 어떤 분으로 다가왔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뜻은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원수사랑’과 ‘환대’의 삶으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방식대로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는 말씀을 ‘창조적’으로 실천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실천적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기도수련의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 제자 됨의 삶을 안내해 달라고 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1)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는 말씀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는 말씀 안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각자 지니고 살아왔던 예수님의 상을 점검해 봅시다.
- (2)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묘사하는 최고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잠시 그 말씀에 머물러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 (3) 예수님이 자기 삶을 통해 성부께 충성을 다했듯, 오늘날 우리 각자도 그분의 제자로 성부께 충성을 다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일터에서 하느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15차 교육 주간(2020년 5월 25~31일) 담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예수님 찬미!

교육자, 학부모,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다섯 번째를 맞이한 올해 교육 주간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과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평화를 촉진할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평화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한 거요.” “전쟁이 없는 거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가 좀 더 조용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바람과는 달리, 많은 가정과 학교에서 평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자주 보이며, 폭력적인 말과 행동, 이기주의와 무관심, 경쟁심, 비민주적 관계가 지배적인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평화는 인간관계가 지위와 서열, 돈과 힘에 따라 지배될 때 쉽게 깨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평화의 촉진자’로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평화를 촉진하는 일은 그저 시끄럽지 않거나 다툼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멈추지 않으며, 약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툼을 해소시키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서로의 대화를 진전시키는 ‘적극적 평화’를 조성하는 행동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평화를 ‘사람들의 선익善益을 보호하고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을 중히 여기는 형제애兄弟愛의 끊임없는 실천’(2304항 참조)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교육자와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담당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서 진심 어린 대화를 꾸준히 시도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자애와 존중이 담긴 대화에서 시작되며 온유와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전쟁의 상처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2020년 5월 교육 주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

제15차 교육 주간(2020.5.25-31.)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실천하기

1. 학교와 가정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합니다.
2. 학교에서 평화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과 행사를 시행합니다.
3. 가정, 학급, 학교 차원에서 평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소(예: 전쟁 기념관, 독립 기념관, DMZ[비무장 지대], 평화 누리길 등)를 방문합니다.
4. 가정과 학교, 사회와 세계가 더 큰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故 이응석 프란치스코 신부 10주기 추도미사

일시: 6월 8일(월)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남경철 신부 010-9514-0825

로템의집 로템자리 직원모집

모집: 상담원 1명(정규직)

접수: 전자우편(rodemgari@hanmail.net) 및 방문접수 가능(제목에 반드시 '상담원-성명' 기재)

마감: 6월 5일(금) 18:00까지

문의: 로템자리 시설장 010-3583-100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rothem03.or.kr) 참조 바랍니다.

✦ 그라츠-섹카우 교구

요한 베버Johann Weber 주교 선종



그라츠-섹카우 교구 56대 교구 장으로서, 마산 교구와 자매결연을 맺으신 요한 베버Johann Weber 주교님께서 지난 5월 23일(토)

새벽 선종하셨습니다. 많은 연도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약 력

1927. 4. 26. 그라츠 성 바이트 출생

1950. 7. 2. 사제 서품

1950.~1953. 카펜베르거, 퀘플라흐 보좌 신부

1956.~1962. 가톨릭 청년 노동 사목

1962.~1969. 그라츠 성 안드레아본당 주임 신부

1969. 6. 10. 그라츠-섹카우 주교로 지명

1969. 9. 28. 주교 서품

1971. 10. 15. 마산교구(故 장병화 주교)와 자매

결연 체결

2001. 3. 12. 은퇴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2020년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6월 6일(토) 14:00	도심 속 침묵의 공간 (창원)마음의 집	010-2000-4131	침묵가운데 하느님만이 전부이고 싶은 미혼여성
성공로반외방선교회	6월 7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대상: (만)19세~3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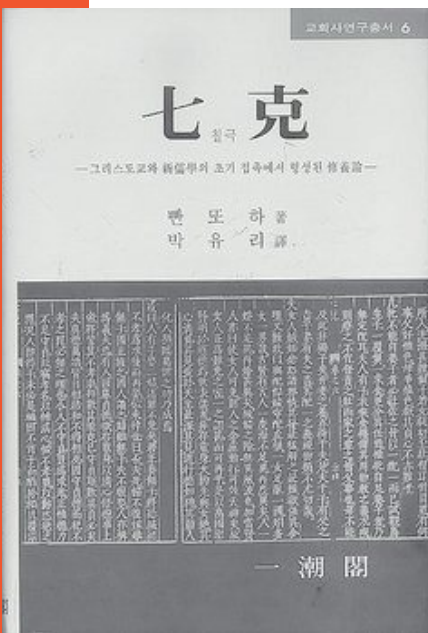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웅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GCA 골프피팅 스튜디오 클럽/스윙/퍼팅 분석·맞춤 클럽 제작·가성클럽 피팅 클럽 수리·그립/샤프트/헤드/골프화 스파이크 교환 마산회원구 봉암로9 온골프존빌딩 (신세계백화점 앞 삼각지공원 건너편) https://blog.naver.com/golfgca ☎ 055.282.1872 (18홀 72타) 김종환 안토니오 창원대학교 체육학 박사수료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제주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타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40년 전통 <팔보효소> 생활절식 · 효소단식 ▶ 미 · 중국 수출 ▶ 부모님 건강 선물 ▶ 간헐적단식 ▶ 해독요법 ▶ 효소피정 ▶ 지리산 산청 발효 · OEM 전문 www.palbo.co.kr ☎ 1600-0830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10월 15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13일 390만원(공동경비 포함) 분도여행사 02.852.852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의로 489(팔용동) 구자룡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수맥축(축)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중 1588-533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할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칠극

전동혁 베드로 신부/ 신시내티 한인성당(미국)

겉옷을 벗지 않고 속옷을 벗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 속옷은 입을 때는 가장 먼저 입지만 벗을 때는 가장 뒤에 벗는다. 교만에 관한 비유다. 목줄이 없는 어떤 강아지가 두 친구 사이로 함께 걷고 있는데 제삼자가 그 강아지의 주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친구가 헤어질 때 알 수 있다. 이 글귀들은 흥미도 있으면서 삶의 교훈까지 담고 있다. “칠극”이라는 책 내용의 일부다. 천주실의보다 그 명성이 빛나지 못하여 지금은 잊힌 고전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실제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칠극이었다. 칠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과 삶의 지침서라 할 수 있겠다. 하여 이 책을 소개해본다.

칠극은 천주실의의 저자 마태오 릿치(1552~1610)와 함께 북경에 천주교를 전파했던 스페인 출신의 판토타 신부(1571~1618)가 쓴 책이다. 죄의 근원인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인색, 음란, 게으름을 경계하여 구원(유학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에 이를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어떤 의미에서 재미없는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식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풀어주고 있다. 더군다나 많은 성인과 교부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 그 주제들이 풍요롭게 펼쳐지는 점 또한 묘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천주실의가 하나의 도그마라면, 따라서 사물의 이치와 원리(격물치지)를 연구하던 중국과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천주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거대한 학문체계로 다가올 수 있었다면, 칠극은 기독교의 수양론에 해당하는 책이었다. 예컨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순교자들이 단순히 신앙만으로 순교했을까? 마음과 열정만으로? 아니다. 그 배경에는 몸 속 깊이 배어 있던 삶의 지침서가 있었다. 바로 칠극이었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7개의 죄의 근원을 극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죽음의 문턱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믿음만으로 순교를 강요하지 말도록 하자. 그러니 이 책을 다시 펼쳐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이 책은 1614년 간행된 이래, 여러 판을 거듭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서문을 적었다. 처음은 “칠극서”다. 명나라 정이위가 쓴 서문이다. 그는 칠극이 유학의 극기복례, 곧 헛된 생각을 제거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는 주정의 수행법(송나라 주돈)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 서문을 남겼다. 남주의 옹명우가 쓴 “칠극인”이라는 서문도 있다. 그는 칠극이 유학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고 하늘의 높은 이치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인 글이어서 이 책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평했다. 이 외에도 여러 서문들이 있다. 소개는 이쯤에서 끝내고 직접 읽어보기를 권한다.

신앙과 윤리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이 둘은 거의 별거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풍요로움을 다시금 회복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